

## 기말 시험 대면 원칙 성적은 절대평가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우리학교가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과 기말고사 대면 시험 시행을 공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학기 학사운영 결정사항을 공지했다. 이는 지난 7일 부총장단의 1학기 학사운영 공지에 대한 추가 안내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 실시 ▲조건적 대면 수업 실시 ▲기말고사 대면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1학기 수업은 전체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 및 이론 강좌 모두 오는 20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부총장단은 “효율적인 수업 내용 전달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5월 20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강사와 수강생이 소통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수강생 중 일부만 대면 수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대면 수업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강의 녹화영상을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강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대면 수업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때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비대면 수업 수강과 성적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강생 전원이 대면 수업에 동의한

전체 비대면 수업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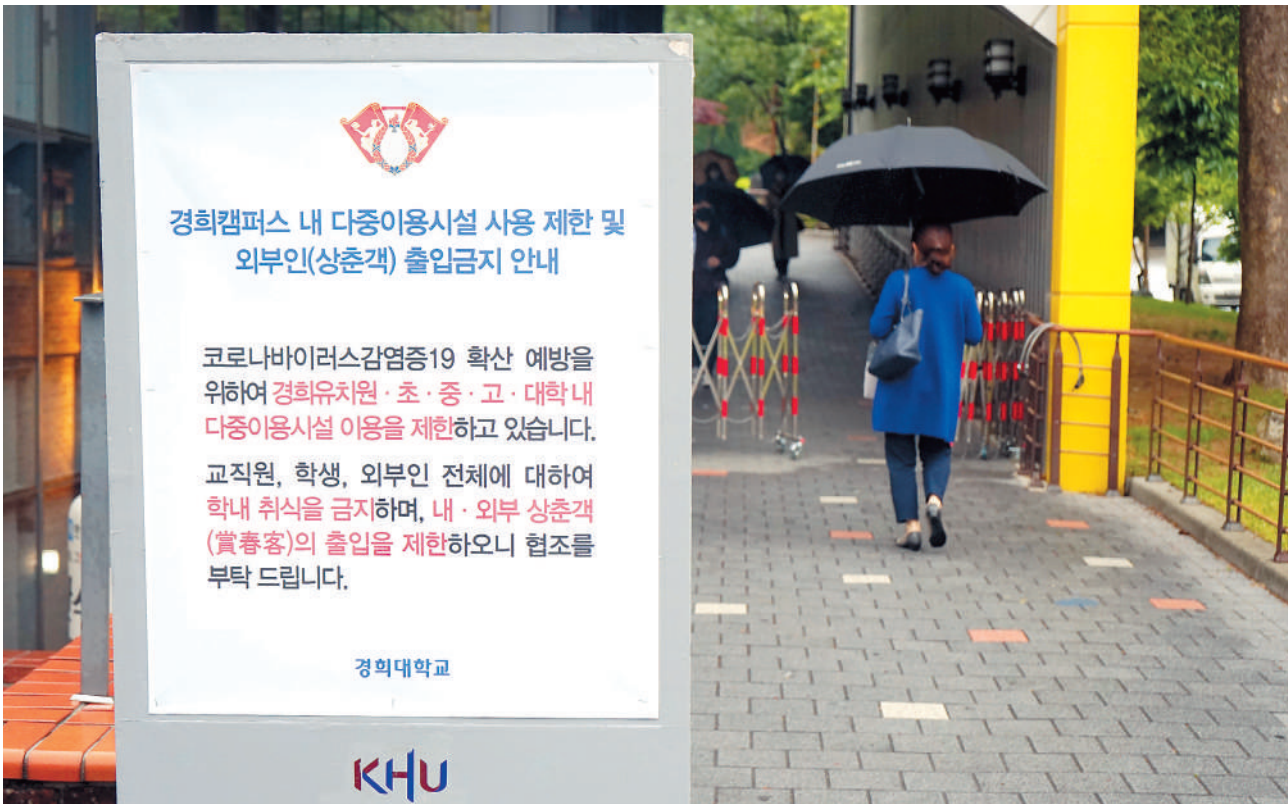
오는 20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총학은 비대면 기말 시험 요구

경우에는 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사지원팀은 “수강생 3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에 대해 대면 수업을 권고하나, 30명 초과 시에도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장의 승인 후 대면 수업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강사가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시험을 대신해 과제물 평가 등의 방법으로 치러졌던 중간고사와는 달리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팀은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부정 발생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평가가 어려워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사지원팀 또한 “공정성 측면에서 대면 시험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면 시험이 불가능한 수강생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대면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은 과제물 평가나 실시간 비대면 평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은 대면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성적은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3면으로 이어짐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긴장의 끈 놓지 못하는 학교

이태원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던 통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해제됐던 정문 출입통제도 다시 시작됐다.  
(사진=장보경 기자)

##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교내 통제 다시 강화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서울】‘이태원 유흥시설 집단 감염’ 여파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 발생하면서 교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종합 상황실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약학대학 재학생 A 씨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태원 방문 이후 교내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외 실습을 함께 진행한 밀접 접촉자 3명의 학내 동선 역시 없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집단 감염 우려가 퍼짐에 따라 교내 출입 통제 또한 다시금 강화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무팀 장세윤 과장은 “단과대학과 각 건물 출입문 통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태원 사태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13일부터는 정부 방역체계가 ‘생활 속

지난 12일 이태원발 코로나19 우리학교 재학생 발생

“출입문 통제 완화 논의, 이태원 사태로 중단”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해제됐던 정문 출입 통제도 다시 이뤄졌다.

추가 감염에 대한 대응으로 이태원 방문 여부 전수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익명 검사 방침과 개인정보 문제로 학교 차원에서 선제적 대처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종합 상황실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강제로 신고토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 또한 익명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가 나서 선제적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차 감염 발생 가능성 배제를 위해 일부 교내 시설 이용 또한 다시 제한된다. 서울캠 총무팀은 1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등에 따른 건물통제 및 출입제한 시행 안내’ 공지를 통해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 전체를 대상으로 각 단과대학 및 교내 시설의 건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도서관, 열람실, 고시반, 국시실, 동아리실 등의 내부 공간과 본관 분수대, 중앙도서관 숲, 선동호, 청운관 녹원, 평화의 전당 관장 산책로 전체 등의 외부 공간이 해당한다.

한편 전국에서 집계된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16일 기준 16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3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감소세에 있던 자가격리자 수도 다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5일 이후 하루 1,2천 명씩 감소하던 자가격리자 수가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계절학기 공지 수정...비대면으로 시행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진행 방식이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된다. 절대평가 실시 등 수업 운영에 관한 공지 내용도 수정됐다.

지난 13일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하계 계절학기 수업 변경 내용이 추가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는 지난 달 28일 하계 계절학기 수업 개설 공지가 있는 후 학교 측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이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해 재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하계 계절학기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단 이론 강좌 중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하며, 실험 실습 및 실기 강좌는 대면수업으로 운영 가능하다. 또한 계절학기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변경됐다.

수업료는 이전 공지와 같이 학점 당 9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3% 인상됐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12월 서울캠

퍼스(서울캠)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가 발표한 ‘등책위 합의안’에서 다룬 내용이다. 당시 학교 측의 미흡한 인프라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상이 이뤄졌으며 대신 학생위원이 몇 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서조항은 ‘계절학기 폐강 기준 완화’, ‘계절학기 희망과목 담기 시행’ 등이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캠 총학생회는 “계절학기 수업료 재논의와 수업료 인상에 대한 조건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 지면안내

### 특집기획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코로나19로 체험한 미래 교육 >> 4~5면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연재기획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 6면

### 알림

사령

명

〈정기자〉

김가연(국어국문학 2019), 이지민(국어국문학 2018)